

<기말보고서>

언어 순위 매기기  
- 『일반언어학 강의』와 『언어본능』으로 바라본  
언어우열론의 허상-

강좌명: 해(解): 기호와 사유  
담당교수: 송근영 교수님  
제출일: 2016. 06. 02.

소속: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번: 2015\*\*\*\*\*  
이름: 유수정

# 언어 순위 매기기

## - 『일반언어학 강의』 와 『언어본능』 으로 바라 본 언어우열론의 허상-

불어불문학과

2015\*\*\*\*\*

유수정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일반언어학 강의』 속 반박 근거
  - 1. 기호의 자의성에 의한 반박
  - 2. 역사적 산물로서 언어가 가지는 특성에 의한 반박
- III. 『언어본능』 속 반박 근거 - 언어 작동 원리의 보편성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사람들은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감히 하늘에 닿고 싶어 했다. 인간의 이런 오만함에 분노한 신은 결국 원래 하나로 통일되어있었던 언어를 여러 가지로 나눠버린다. 이로 인해 바벨탑 건설은 결국 혼돈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된다. 탑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달라진 언어로 인해 불신과 오해 속에서 반목하게 되고 서로 다른 언어들과 함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는 세계 속의 언어들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이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약 6000개 이상의 언어가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고 있다. 물론 자국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존재하지만, 언어가 다양하고 세계 각국에서 과거 신이 분노하기 전의 상황과 같이,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들에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언어들은 서로 다른 단어, 문법 체계, 언어 표현을 가지고 있다. 즉, 언어들 간에 서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어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수많은 언어들 속에서 ‘언어 순위 매기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차이를 근거로 어떤 특정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증거로 제시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는 아침을 마치기 전에,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한글의 용이(容易)함과 한자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위해 쉬운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한글의 용이함과 한글 속에 담겨 있는 세종대왕의 정신은 한국어의 우수

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프랑스에는 ‘Ce qui n’est pas clair n’est pas français. (분명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프랑스어가 논리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 속에는 프랑스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논리적이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우수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외에도 프랑스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느니 하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른 언어에 비해 우월한 언어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렇게 언어들 간에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언어우열론’이다. 즉, 세상에는 우월한 언어와 열등한 언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정 언어가 다른 언어와의 비교에서 우위에 서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위의 사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의 주장들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언어의 우열을 나눌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우열을 나누는 데는 단어의 풍부함, 언어의 논리성, 표현의 아름다움, 표현의 고유성, 문자의 용이함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문자의 용이함이 언어 간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면 한국어가 우수한 언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언어의 논리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프랑스어가 우수한 언어가 될 것이다. 이처럼 우열 판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우월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간에 우열 관계가 정말로 존재하느냐하는 문제는 결국 어떤 언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우월한 언어도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일반언어학 강의』 속 반박 근거

언어학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월한 언어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다. 하지만 언어우열론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떻게 반박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알고 가야할 개념들이 있다.

소쉬르는 언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언어 기호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어 기호가 결합하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영상이라고 말한다. 개념은 말 그대로 표현하고자하는 관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각영상은 순수한 물리적 사물인 질료적 음성<sup>1)</sup>이 아니라 음성의 심리적 각인, 즉 우리 감각이 나타내 주는 음성에 대한 표상<sup>1)</sup>을 의미한다. 소쉬르는 언어 기호를 양면성을 지닌 심리적 실체라고 정의하면서, 언어 기호가 개념과 청각영상, 이 두 요소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소쉬르는 이 정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다.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한 용어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개념과 청각 영상의 결합체를 기호(signe)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행의 용법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청각영상, 예컨대 단어(arbor 등)만을 가리킵니다. arbor를 기호로 부르는 것은, 단지 이것이 ‘나무’라는 개념을 지니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 기호의 감각적 부분이라는 관념이 기호 전체에 대한 관념을 함축한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 대립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 명칭들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세 개념을 가리킨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기호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개념과 청각 영상은 각각 기의(signifié)와 기표(signifiant)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sup>2)</sup>

1)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역, 지식은만드는지식, 2012, 134~135쪽.

이처럼 소쉬르는 각각 개념과 청각영상에 해당하는 기의와 기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쉬르가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설명한 언어 기호의 특성들이 어떻게 언어우열론을 반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호의 자의성에 의한 반박

소쉬르는 기호의 자의성을 언어의 제1원리로 삼았다. 여기서 기호가 자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호 자체가 질서가 없고 제멋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기호의 자의성은 소쉬르가 제시한 예시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soeur’라는 관념은 기표로 사용되는 s-ø-r라는 일련의 음성과는 아무런 내적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은 다른 어떤 음성 연쇄로도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언어들 사이의 차이점과 서로 다른 언어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boeuf’라는 기의는 프랑스 국경의 이쪽에서는 기표로 b-ø-f를 갖는 반면, 국경의 저쪽 독일에서는 o-k-s(Ochs)를 기표로 갖습니다.”<sup>3)</sup>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개념(기의)을 반드시 하나의 특정한 청각영상(기표)으로 드러내야 할 이유가 언어에는 없다. 예컨대 ‘언어’라는 개념(기의)을 ‘langage’(영어), ‘langue’(프랑스어), ‘언어’(한국어), ‘语言[yǔyán]’(중국어) 등으로 언어마다 얼마든지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호의 자의성으로 인해 언어우열론은 무력화된다. 이는 특정 기의를 반드시 특정 기표로 표현해야 할 당위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는 기호인데, 기호는 앞에서 말했듯이 개념과 청각영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모든 언어마다 개념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청각영상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가 기타 언어들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려면 특정 언어의 청각영상이 다른 언어의 청각영상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개념과 청각영상 사이에는 그 어떤 필연적 연고가 없다. 이처럼 굳이 어떤 개념을 특정한 청각영상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정 언어의 청각영상이 다른 언어의 청각영상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언어 간에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2. 역사적 산물로서 언어가 가지는 특성에 의한 반박

만약 누군가가 한국인에게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왜 한국어를 사용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을 받은 한국인은 아마 어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쓰는 것이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 것이다. 이처럼 언어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직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기호의 불변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쉬르의 말 속에서 역사적 산물로서 언어가 가지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기표는 그것이 표상하는 관념과 관련해서 자유로이 선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입니다. (...) 이 사실은 모순점을 내포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로 ‘요술쟁이 카드’로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어에게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이 기호라야지 다른 기호는 안 됩니다.”하고 말을 덧붙이는 식입니다. 개인이 혹시 원한다고 해도 이미 선택된 기호는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 집단도 한 단어에조차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 집단은 현존하는 언어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순수한 계약

2) 위의 책, 136~137쪽.

3) 위의 책 138쪽.

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언어 기호를 연구하는 것이 각별히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측면입니다. 그 이유는, **한 언어 집단이 수용한 법칙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동의한 규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를 언어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사실상 어느 사회도 언어를 그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산물로서, 물려받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했고, 또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sup>4)</sup>

소쉬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공동체는 과거로부터 언어를 유산으로 부여받는다.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쓰는 이유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 전서부터 한국어가 쓰여 왔기 때문이고, 중국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국어를 썼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는 언어 공동체가 왜 자신들이 특정 언어 법칙 수용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즉,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가 자유로운 반면에 언어 기호와 언어 공동체 간의 관계가 자의적이지 않고 강제되는 이유는 오직 역사적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언어 공동체에 특정 언어가 강제된다는 사실은 언어우열론을 반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사실을 통해서 특정 언어 공동체가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과거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특정 언어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 언어 공동체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과거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에게 자신들의 언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 공동체에게는 언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곧 언어에는 언어 사용자의 의지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그 언어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언어는 언어 공동체가 역사적 유산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한 언어 집단이 자신들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 언어조차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면 어떻게 그들의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언어우열론은 역사적 산물로서 언어가 가지는 특성에 의해 그 부당함이 드러난다.

### Ⅲ. 『언어본능』 속 반박 근거 - 언어 작동 원리의 보편성

스티븐 핑거는 『언어본능』에서 언어가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 본능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언어가 식욕, 성욕, 수면욕같이 인간에게 본능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그 주장의 근거를 언어의 보편성에서 찾는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 속에는 보편성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을 쉽게 체득하기는 어렵다. 영어와 한국어만 비교해도 이 둘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티븐 핑거는 자신의 저서에서 “촘스키는 화성인 과학자가 지구를 방문하면 틀림없이 지구인들 상호간의 이해 불가능한 어휘들은 무시하고, 지구인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sup>5)</sup>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언어의 작동 원리에 보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면, 우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은 이산조합 체계이다. “유한한 수의 개별요소들(이 경우에는 단어들이 조합되고 치환되어 그 요소들의 특성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띠는 더 큰 구조(이 경우에는 문장들)를 만들어 낸다.”<sup>6)</sup>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은 사슬이 아닌 나무

4) 위의 책, 145~146쪽.

5) 스티븐 핑거, 『언어본능』, 김한영·문미선·신효식 역, 동녘사이언스, 2008, 354쪽.

6) 위의 책, 125쪽.

구조를 형성한다. “잔가지가 모여서 굵은 가지가 되듯이 인간의 문법에서는 단어가 모여 구가 된다. 구에는 이름(마음의 상징)이 붙여지며, 작은 구들이 합쳐져서 더 큰 구를 이룬다.”<sup>7)</sup> 이렇게 단어가 모여 구가 되고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등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구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일까? 핑거는 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X-바 이론’을 제시한다. “X-바는 하나의 핵어와 수에 상관없이 그 뒤에 오는 역할수행자들로 이루어진다.”<sup>8)</sup> 여기서 핵어란 구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말한다. 가령 ‘내 친구의 책’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이 문장에서 핵어는 ‘책’이다. 그리고 역할수행자는 세상에 있는 개개의 사물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일단의 행위자들을 지칭할 수 있게 해준다. 언뜻 보면 역할수행자가 구의 세 번째 필수성분인 수식어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sup>9)</sup>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언어우열론을 반박하는데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구에 대한 이러한 범용의 청사진은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내 친구의 책’, ‘The book of my friend’,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언어에 따라 구가 구성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구의 핵어가 역할수행자 앞에 오는 것이고, 한국어에서는 핵어가 역할수행자 뒤에 오는 것뿐이다. 즉, “영어라면 X-바 내에서의 어순을 위해 ‘핵어 선치’라는 간단한 정보를 추가하면 된다. 한국어라면 ‘핵어 후치’라는 정보를 추가하면 된다.”<sup>10)</sup>

“X-바는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의 핵어 X와 수에 상관없는 역할수행자들로 구성된다.”<sup>11)</sup>

이 문장은 구 구성에 있어서 어순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서 어떻게 구가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외에도 문법에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예시들이 있다. 가령 “Built Jack that house the this is?”처럼 한 문장 안의 단어를 역순으로 놓음으로써 의문문을 구성하는 언어는 하나도 없다. 또 일부는 통계적이다. 거의 모든 언어에서 주어는 대개 목적어에 선행하며, 동사와 목적어는 인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언어들은 SVO나 SOV 순서다. VSO 순서인 언어는 훨씬 적고, VOS 및 OVS 순서는 아주 드물며(1% 미만), OSV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몇몇 후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언어들이 OSV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언어학자들이 있다).<sup>12)</sup>

이런 언어 작동의 보편적 방식은 언어우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근거이다. 왜냐하면 서로 달라 보이는 언어들의 작동 원리가 사실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언어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특별히 우월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언어 간에 우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나오며

사실 언어우열론은 종종 국가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담론과 결부되어 힘을 받는다. 이는 국가주

7) 위의 책, 146~147쪽.

8) 위의 책, 166쪽

9) 위의 책, 160~161쪽

10) 위의 책, 167쪽

11) 위의 책, 167쪽

12) 위의 책, 356~357쪽.

의, 민족주의가 우세했던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주변의 이민족들을 ‘barbarus’라고 불렀는데, 이는 ‘더듬거리다’라는 뜻으로, 그리스어를 모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즉, 그리스문명과 그 상징인 그리스어가 다른 이민족의 언어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의 표현인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백인종의 주(主) 언어인 인도유럽어가 진화의 정점에 있는 언어라고 간주하고, 이를 진화론 등 과학적 담론을 이용하여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식민당국이나 선교사들은 식민지의 토착어들이 열등하다는 전제 하에 문명의 상징인 유럽의 언어를 이식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슈테판 울만이나 오토 예스베르센 등의 저명한 학자들도 소수 민족의 언어 체계를 연구하면서 명세하고 정교한 어휘 체계에 대해 과도한 기억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정신 작용의 증거로 간주하거나, “추상 어휘가 없는 것은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것” 등의 논평을 하였다.”<sup>13)</sup>

자국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어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로 그 속에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깃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민족주의자나 인종주의자에 의해 자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언어는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인종주의,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다른 인종, 국가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다. 이는 『언어본능』의 저자 스티븐 핑거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문화적 발명품들은 사회마다 그 정교함이 크게 다르며, 한 사회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교함의 수준이 동일하다. 어떤 집단은 뼈에 금을 새겨서 계산하고, 통나무에 마른 나뭇조각을 비벼서 일으킨 불로 요리를 한다. 반면에 어떤 집단은 컴퓨터와 전자레인지로 이용한다. 그러나 언어에서는 이러한 상관성이 어이없이 무너진다. 석기시대 사회는 존재하는데, 석기시대 언어는 없다.”<sup>14)</sup>

이와 같이 언어는 심지어 언어 공동체의 사회 수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사회나 그렇지 않은 사회나 언어의 수준은 모두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순위 매기기’는 결국 의미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스티븐 핑거, 『언어본능』, 김한영·문미선·신효식 역, 동녘사이언스, 2008.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2. 기타

“언어우열론”, <위키백과>, 2008. 4. 2, <<https://ko.wikipedia.org/wiki/%EC%96%B8%EC%96%B4%EC%9A%B0%EC%97%B4%EB%A1%A0>>, (2016. 6. 01.).

13) “언어우열론”, <위키백과>, 2008. 4. 2, <<https://ko.wikipedia.org/wiki/%EC%96%B8%EC%96%B4%EC%9A%B0%EC%97%B4%EB%A1%A0>>, (2016. 6. 01.).

14) 스티븐 핑거, 『언어본능』, 37쪽.